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tress*

최미경(Mi-Kyung Choi)¹⁾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320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161 boys and 159 girls) from the Seoul area.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others' parent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tres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s. It was observed that maternal warm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stress in both boys and girls. Children's self-esteem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stress in both boys and girls. In addition, maternal warm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in both boys and girls. It was further found that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artially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stress only in boys.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and children's stress only in girl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self-esteem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levels of children's stress.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자아존중감 (self-esteem), 스트레스(stress).

I. 서 론

스트레스는 대개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가

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
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
으로, 최근 아동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¹⁾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Human Development,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E-mail : dmkchoi@duksung.ac.kr

로 조사된 바 있다(이소현, 2009).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대개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혹은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 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현, 2009;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8). 실제로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7~19세의 아동, 청소년 871만명 가운데 정신질환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던 인원이 17만 9천명으로, 100명당 2.06명꼴이었으며, 이들 정신과에 오는 아동들이 전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매개가 돼 부모와 갈등을 겪는 등 학업이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성숙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미숙하여 성인들의 대처 방식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12-18세의 아동 86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의 6.6%는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고, 26.1%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55.2%는 조금 느끼고 있는 반면, 불과 12.1%만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업문제(67%), 진로문제(13.8%), 가정문제(6%), 친구문제(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장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 및 행동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즉, 해결되지 않은 아동기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외상(trauma) 혹은 발달적 불균형을 초래하여(이보경, 2000),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정감이나 신체적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나아가 아동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무력감, 불안, 긴장 등을 야기시켜 아동기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Elkind, 1983; Youngs, 1995). 국내 연구결과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감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임자성; 2002), 불만, 걱정, 짜증, 고통, 부담감을 가졌으며(최명선·김광웅, 2001),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한미현, 1996). 실제로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중복되어 노출되면 복합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중대한 위기 사건 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된다(Brooks-Gunn, 1991).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동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낮추어 학업 뿐 아니라 개인의 전체 생활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장윤정, 199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이 부모의 요구로 과외활동과 시험 등에 노출되며 이러한 성취를 강요하는 활동들로 인해 긴장이나 걱정, 부담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흔히 경험하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온 가정환경 변인들 가운데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일상생활 안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아동에게 가장 비중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자녀관계 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의 태도와 양육 방법 변화, 아동을 향한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로

나타났다(정동화, 2003).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 방법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며(최성윤, 1991),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립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부모가 다정다감한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은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였고(김대권, 2004; 부영희, 2000; 현우택, 2000), 회피, 무시, 자기고립 등의 대처 행동을 적게 선택하고 적극적,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김민정, 2003). 또한 부모의 정서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측면의 지지가 아동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영실, 2006).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달라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은 문제중심, 지지추구 등의 긍정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였다(홍미영, 2006). 반면,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태도와 허용/방임적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한 집단은 적게 지각한 집단보다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김민정, 2003).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기대를 하거나 성취압력이 높으면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권혁록, 1996; 이지영, 2004; 천민필, 1993; 황혜정, 2006). 즉, 부모가 자녀의 지적 성취를 강조하면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지시, 통제와 성취를 강요하게 되어(오종현·정태연, 2006), 자녀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련성이 크다는 연구는 보고되나,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를 나누어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도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 가운데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온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김정옥, 2006), 우울증 및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고(박정희, 1989), 또래보다 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종혜, 1994). 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며(김경자, 199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이영자, 1994), 부모관계와 교우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경자, 1994). 국외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자아를 부정적으로 자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Drenner, 1984), 자신에게 더 비판적이므로 자기 수용이 힘들고,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Pirot, 1986). Coopersmith (1967)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증후 즉, 불안, 신경증, 불면증, 두통 등으로 고통을 더 받는다고 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소수가 보고되나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계 깊은 경험으

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모아져 왔으며(조규성, 2000),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어머니의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김문혜·김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최보가·손낙주, 1998; Eaton, 1997; Fletcher, Darling, Steinberg, & Dornbusch, 1995)나 부모애착이 안정적인수록(박영림·최해립, 2002), 부모의 지지, 애정 및 감독이 클수록(Menon, Tobin, Corby, Menon, Hodges, & Perry, 2007)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부나 제재를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의 거부, 제재, 통제, 냉담 및 권위적인 양육행동 등은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박영애, 1995; 오순환, 1991, 우미경, 2008; Dubois, Eitel, & Felner, 1994)가 있는 반면,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도현심·최미경, 1998; Young, 1993)도 있고,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도 있다. 그 밖에 통제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아동이 성장할수록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Anderson & Hughes, 1989)도 있다. 또한, 허용이나 방임 및 느슨한 훈육에 대해서도 결과들 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허용이나 느슨한 훈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 Kawash, Kerr, & Clewes, 1985)가 있는 반면에, 허용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Young, 1993)도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기의 심리 발달에 영향이 큰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김대권, 2004; 부영희, 2000; 현우택, 2000).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김정옥,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은 인성특성의 하나인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모가 온정, 수용적으로 양육을 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며(최보가·손낙주, 1998; Eaton, 1997), 통제나 허용적으로 양육을 할 때는 연구자들 간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Anderson & Hughes, 1989; Kawash, Kerr, & Clewes, 1985). 위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

스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온정을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러한 자녀는 병리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김보현, 1999). 즉 부모로부터 사랑과 온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건강의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 또한 부모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아동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어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한다고 하였다(이미란, 2004). 즉,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과정은 독립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조절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심리, 사회적 요인 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채혜정·박경희, 2000). 이처럼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일반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적자원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 변인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보고 하여, 남아보다 여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문금순, 1992).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아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애착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다(최미경·도현심, 2000). 또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여아보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현심·최미경, 1998; Margolin, Blyth, & Carbone, 1988)가 있는가 하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김문혜·김문희 1999; Richard, Gitelson, Peterson, & Hurtig, 1991)도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 2>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J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320명의 남녀 아동(남아 : 161, 여아 : 159)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기 말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부담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시기 아동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 볼 때,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으로(Piaget, 1932), 효능감, 자존감, 지지감 등에 관한 자기평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Morris & Nemcek, 1982).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213명(65.7%)과 175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36.1%, 500만원 이상이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61명(49.7%),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00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의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아동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총39문항으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그리고 과보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 요인은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구성된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요인을 사용한 최정희(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과보호 요인은 도현심(1994)의 6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과보호 척도 가운데 9문항으로 구성된 과보호 요인을 사용한 최정희(2010)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온정/수용 요인은 '나를 기쁘게 해줄 일들을 잘 생각해내신다', '내 기분을 잘 이해해주신다', '내가 어머니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머니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다', 거부/제재 요인은 '내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나무라신다', '나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하신다', '나 때문에 힘이 드신다는 말씀을 때때로 하신다', 허용/방임 요인은 '어떤 것이든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하신다', '하면 안 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과보호 요인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시는 편이다', '가끔씩 내가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실 때가 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워주신다', 등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Likert 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 .92, 거부/제재 .88, 허용/방임 .70, 그리고 과보호 .76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선영과 도현심

(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본 분석에 사용된 10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77이었다.

3) 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owilson과 Felner(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와 Dohrenwend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국내 선행연구들(류수영, 1994; 천민필, 1993; 한미현, 1993)을 기초로 한국 아동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본 척도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주변 환경 관련 요인 등 총 6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8문항)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와 학업 관련된 요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으며(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이소현, 2009;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8)에 근거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주로 어머니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어머니가 내 생각이나 의견

을 존중해 주지 않아 불만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등으로 어머니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나는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많아 힘들다' 등으로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 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는 각각 .87, .84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4월에 서울시 N구에 위치한 J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은 학급에서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4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 97.14%)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32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

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단순회귀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온정, 수용 양육행동과 아동의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거부, 제재 양육행동과 아동의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남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r = -.62, p < .001$ / $r = .65, p < .001$, 여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 $r = -.64, p < .001$ / $r = .69, p < .001$). 또한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남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r = -.34, p < .001$ / $r = .40, p < .001$, 여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 $r = -.45, p < .001$ / $r = .56, p < .001$). 특히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 방임 양육행동과 학업관련 스트레스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16, p < .05$)(표 1). 즉, 남녀아동은 어머니가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온정/수용	-.62***	-.64***	-.34***	-.45***
거부/제재	.65***	.69***	.40***	.56***
허용/방임	.15	.08	.15	.16*
과보호	-.04	-.07	.00	-.01

주 : 남아는 161명, 여아는 159명임.

* $p < .05$. *** $p < .001$.

었으며,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와 제재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여길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 외에,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허용하고 잘 돌보지 않는 방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보호는 남녀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간에 유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아동의 자아존중감	-.40***	-.43***	-.51***	-.47***

주 : 남아는 161명, 여아는 159명임.

*** $p < .001$.

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남아 : 어머니/ 학업관련 스트레스 $r = -.40, p < .001$ / $r = -.51, p < .001$, 여아 : 어머니/ 학업관련 스트레스 $r = -.43, p < .001$ / $r = -.47, p < .001$)(표 2).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남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r = .36, p < .001$ / $r = -.34, p < .001$, 여아 : 온정, 수용/거부, 제재 양육행동 $r = .42, p < .001$ / $r = -.41, p < .001$). 또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18, p < .05$)(표 3). 즉 남녀아동 모두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통제, 거

부적이거나 제재를 한다고 여길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상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의 스트레스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외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남녀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남녀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1, 표 2, 표 3). 이처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Baron과 Kenny(1986)가 지정한 어느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남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영향력($\beta = -.34, p < .001$)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도가 낮아졌다($\beta = -.17, p < .05$). 즉,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약 29%였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	
	남아	여아
온정/수용	.36***	.42***
거부/제재	-.34***	-.41***
허용/방임	-.18*	-.09
과보호	.08	.02

주 : 남아는 161명, 여아는 159명임.
* $p < .05$. *** $p < .001$.

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표 4).

여아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유의한 영향력 ($\beta = .16, p < .05$)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표 4> 남아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18	-.17*
자아존중감	-.80	-.45***
R ²	.29	
F	32.58***	

주 : 남이는 161명, 여이는 159명임.

* $p < .05$. *** $p < .001$.

<표 5> 여아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26	.12
자아존중감	-.74	-.46***
R ²	.24	
F	24.08***	

주 : 남이는 161명, 여이는 159명임.

*** $p < .001$.

자아존중감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약 24%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온정/수용,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과외활동이나 학업부담감이 증가하며 부모의 학업적 관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발생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은 어머니가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최성윤, 1991),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립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부모가 다정다감한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은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였다(김대권, 2004; 부영희, 2000; 현우택, 2000)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달라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은 문제중심, 지지추구 등의 긍정적 대처

행동을 사용하였다(홍미영, 2006)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와 제재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여길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으면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며(류연자, 1995; 이지은, 2007), 부모가 자녀의 지적 성취를 강조하면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지시, 통제 그리고 성취를 강요하게 되어(오종현·정대연, 2006),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 외에,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허용하고 잘 돌보지 않는 방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영향을 많이 받아(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때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수가 증가한다는 보도(통계청, 2008)에 근거할 때 아동기의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모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남녀아동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어머니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무기력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된다(김정옥, 2006; 박정희, 1989)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어린이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어린이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문금순, 1993)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각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이러한 스트레스는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기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 가정 및 교육현장의 관심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동 모두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김기정, 1984; 도현심·최미경, 1998; Gecas & Schwalbe, 1986;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Sears, 197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통제, 거부적이거나 제재를 한다고 여길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거부, 제재, 통제 및 권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오순환, 1991; Litovsky & Dusek, 1985; Openshaw, Thomas, & Rollins, 1983, 1984)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나, 부모의 통제가 자아존중감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결과(김경연, 1987; Young, 1993) 및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

감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보고(Anderson & Hughes, 1989)와는 다른 결과이다. 거부, 제재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불일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성이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Young, 1993)와는 일맥상통하나 허용성과 느슨한 훈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Hill, 1980; Kawash, Kerr, & Clewes, 1985)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허용적인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실천하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꾸준한 부모교육과 학교를 통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아가 느끼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을 받을 때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지 않으며 나아가 부적응적인 심리적 결과인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온정을 얻게 되면 자존감을 획득하게 되고,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획득한 자녀는 미성숙하게 되며 자녀는 실망하거나 병리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김보현, 1999)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스트레스 경험 자체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 심리, 사회적 요인 등이 개인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있다는 보고(이은선, 2000)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고학년인 여아가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온정을 얻게 되면 자존감을 획득하게 되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건강의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된다(김보현, 1999)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력이 사라지며 아동이 성취한 내적인 개인적 특성만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어

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어머니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여아가 학습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어머니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서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과제에 대한 계획 능력과 주의집중력이 뛰어나며(Warrick & Naglieri, 1993) 인지적 능력이 높아(Naglier & Rojahn, 2001) 유능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어머니의 영향력보다는 여아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녀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 건강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케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덜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궁극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학업적 부담과 어머니의 강압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자녀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 등의 모든 변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 등을 아동이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평가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아동과 어머니가 경험하는 지각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인식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심리적인 변인인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양방향적이라는 문헌고찰을 고려해 볼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괴외활동과 학업 및 부모의 지나친 관여 등으로 부담감이 증가하는 시기인 아동기 후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아동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등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영실(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정 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혁록(1996).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대권(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혜 · 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 김민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희(2006). 중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현(1995). 부모의 양육행동,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빈(2008).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주(2002). 중 · 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옥(2006). 가족스트레스, 가족체제 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1994).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 부모의 관심, 부모의 보호,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 ·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금순(1993).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 ·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영림 · 최해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성향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영희(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수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진아(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기대 및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현·정태연(200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3(2), 43-54.
- 우미경(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란(2004).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보경(2001).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양식과 충동성향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현(2009).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 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선(2000).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1), 133-150.
- 이지은(2007). 과외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학습 스트레스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자성(2002).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윤정(1996). 아동,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동화(2003).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17, 135-154.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규성(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한가 -전국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9-81.
- 채혜정·박경희(2000). 아동의 신체의식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적응과의 관계. **아동권리학회지**, 4(1), 137-151.
- 천민필(199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김광웅(2001). 실직과 비실직가정 아버지의 부적응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보가·손낙주(1998).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과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4), 121-135.
- 최성윤(1991).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희(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8).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조사**. 서울: 통계청.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종혜(1994).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인간 발달연구**, 1(1), 85-99.
- 현우택(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미영(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섭(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2007). 방과후 발레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ooks-Gunn. (1991).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ompas, B. E., & Wagner, B. M. (1991). *Psycho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ce : Intra 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M. E. Colten and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 67-85). N. Y. : Aldine.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Dohrenwend, B. S., & ShROUT, P. E.(1985). "Hassl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aton, M. (1997). Positive discipline :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Fletcher, A. C., Darling, N. E., Steinberg, H., & Dornbusch, S. M. (1995). The company they keep : Relation of adolescents' adjustment and behavior to their friends' perception of authoritative parenting in the social context. *Development Psychology*, 31(2), 300-310.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alpin, G., G. Halpin & T. Whiddon (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s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89-195.
- Hill, J. P. (1980). The family. In M. Johnson(Ed.), *Toward adolescence : The middle school years. the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wash, Kerr, G. f., Kerr, E. N., & Clewes, J. L. (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Larson, R., & Asmussen, L. (1991). *Anger, worry, and hurt in early adolescent : An enlarging world of negative emotion*. In M. E. Colten &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 21-42), N. Y. : Aldine.

-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Margolin, L., Blyth, D. A., & Carbone, D. (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s, E. V. E.,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1627-1639.
- Morris, W. N., & Nemcek, D., Jr. (1982).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motivation among preschoolers : Evidence of a stepwise pro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8*, 413-425.
- Naglier, J. A., & Rojahn, J. (2001). Gender differences in planning, attention, simultaneous, and successive (PASSO) cognitive processes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2), 430-437.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 (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 317-329.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 (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Pirot, M. (1986). The pathological thought and dynamics of the perfectionist. *The individual psychologist, 42*, 51-58.
- Richard,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le, D. N., Boggiano, A. K., Feldman, N. S., & Loebel, J. H. (1980).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115.
- Sears, R. R. (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9.
- Warrick, P. D., & Naglieri, J. A. (1993). Gender differences in planning, attention, simultaneous, and successive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693-701.
- Weigel, Carol, Wertlieb, Donald, Feldstein, & Michae (1989). Perceptions of control, competence, and contingency as influences on the stress-behavior symptom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0).
- Young, M. H. (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2010년 12월 31일 투고, 2011년 3월 17일 수정
2011년 3월 25일 채택